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제2022-16호
(7월 14일 발행)

발행처:진로직업정책과
집필:꿈진집필위원단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의 의미

지난 6월 9일에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통합형 수능 체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작년과 같은 체제로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 과목' 구조로 시행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되며,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를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으로 간접 연계하여 출제하였습니다.

2023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6월 모의평가는 단순히 자신의 성취도나 2023학년도 수능 문제의 방향성을 파악해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자신의 모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목표대학을 설정해 보며, 수시 모집과 정시모집에서의 지원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원자 수의 변화 자료를 통해서도 대입에서의 다양한 지원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의 변화

아래 표와 같이 최근 3년 동안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재학생 수'는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학생 출석 수업의 감소와 더불어 사회 환경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졸업생 등'의 지원자 수(n수생)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6월 모의평가 < 9월 모의평가 < 11월 수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제 지원자 비율 중 재학생이 70.8%(졸업생 등 29.2%)인 점을 고려한다면, 올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지원자 중 재학생 비율이 70%미만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모의평가 지원자 수 현황>

구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지원자 수	증감	지원자 수	증감	지원자 수
재학생	400,473 (83.9%)	-15,321 (-2.2%)	415,794 (86.1%)	-735 (-0.1%)	416,529 (86.2%)
졸업생 등	76,675 (16.1%)	9,570 (2.2%)	67,105 (13.9%)	348 (0.1%)	66,757 (13.8%)
전체	477,148 (100.0%)	-5,751	482,899 (100.0%)	-387	483,286 (100.0%)

* 실제 응시자 수는 결시자 수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전체 인원 감소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 본인의 위치 파악

이전에 시행되었던 3월, 4월 전국연합학력평가와는 달리 6월 모의평가에서는 졸업생 등 재학생 외의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어 실제적인 본인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이 이전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재학생만 응시한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수능 지원자 수 현황>

구분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22학년도 수능능력시험		6월 대비 수능 응시인원 증감	
재학생	415,794명	86.1%	360,710명	70.8%	-55,080명	-15.3%
졸업생 등	67,105명	13.9%	149,111명	29.2%	82,006명	15.3%
합계	482,899명	100%	509,821명	100%	26,922명	0

위 내용을 참조하여 6월 모의평가와 실제 수능 지원자 수의 변화를 가늠해보고 수능능력시험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예측해보는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학습과 입학 지원계획을 꼼꼼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 대학입학 지원계획 설정

6월 모의평가 성적 결과(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를 참고로 2023학년도 수시와 정시모집에서의 지원전략을 본인의 평소 교과별 성적을 토대로 고민해 봅니다.

가. 정시전형 지원 가능 대학의 파악

관심 대학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전의 입시 결과, 선생님과의 진로진학상담 등을 통해 6월 모의평가 성적에 따른 정시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실제 수능 지원자의 구성 비율에 변화가 생기는 것(n수생 증가)을 고려하여 본인의 성적을 낙관적인 태도보다는 객관적이고 냉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수시전형 지원전략과 학습전략

(1) 수시보다 정시전형에 강점이 있는 경우

자신이 수시보다 정시에 감점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시모집에서 약간 상향 지원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능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진로적성이나 성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모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① 정시지원 가능 대학 기준

자신이 정시모집에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상위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전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도전보다는 자신만의 경쟁력이나 진로진학 적합성 등을 고려한 의미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②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높은 대학

수능시험에 경쟁력이 있다면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이 다소 높지만 자신의 특성과 잘 맞는 대학에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③ 수능 이후에 면접, 논술전형이 실시되는 대학

실제 수능에서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이후 면접, 논술평가 등을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하여 수능 성적에 따른 대학별 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④ 학습전략 수정 보완

6월 모의평가를 통해 과목별로 파악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학습계획을 세워 실천 하고, 9월 모의평가 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정시모집에 목표를 둔 학습은 전 영역에 걸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고른 학습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대의 경우 정시에도 교과평가 내용을 반영하므로 2학기에도 교내 학습활동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2) 정시보다 수시전형에 강점이 있는 경우

수능 성적 위주인 정시모집보다 학생부 기반 평가 위주의 수시모집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 수시전형 조건 충족을 위한 자기 분석과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입학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학별 요구 상황에 맞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① 학생부 전형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입시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선생님과 상담 등을 통해 현재 자신의 교과성적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 대학을 파악합니다. 이때, 각 대학의 교과성적 반영방법(학년별 반영비율, 교과별 반영 과목 수, 진로선택과목 반영방법 등) 뿐만 아니라 최근 3년 동안의 입시 결과(모집인원, 경쟁률, 내신 컷) 등을 참고하도록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합격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하므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대학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수능최저학력기준

수시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꼭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수능최저학력기준'입니다. 6월 모의평가의 결과를 참고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학들과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의평가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 수시모집 지원전략을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꿈진

을 만들어가는 로 진학교실



④ 학습전략 수정 보완

정시보다 수시전형에 집중하는 경우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학습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여름방학 이후 실시되는 9월 모의평가(올해는 8월 31일 실시)를 1차 목표로 학습계획을 설정하여 보고,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까지 과목별 학습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제시된 세부사항(2과목 등급 합, 탐구 1과목 반영 등)의 내용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학습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6월 모의평가 영역별 지원자 수 변화와 선택과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작년에 실시된 수능과 실시방법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역별 지원자 수의 변화에 따른 과목별 등급 변수 등을 고려하여 입학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결과에 나타났던 것처럼 재학생의 감소, n수생의 증가 등 다양한 결과가 올해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응시생 수(재학생, 졸업생 등)와 함께 영역별 지원자 수의 변화 등을 잘 파악하여 자신에게 맞는 입학방안을 찾고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 수능에서의 영역별 지원자 수 비율과 7월 6일 발표된 6월 모의평가 평가채점 결과의 영역별 지원자 수를 통해 그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영역 지원자 수>

구분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계	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계
인원(명)	357,976	149,153	507,129	257,466	184,608	41,546	483,620
비율(%)	70.1	29.9	100.0	52.8	39.3	7.9	100.0

6월 모의평가 이후 탐구영역뿐만 아니라 국어,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 변경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 영역의 '언어와매체', 수학 영역의 '미적분' 선택과목에 대한 지원자 수 비율이 예년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입학시험에서 유불리를 고려한 갑작스러운 선택과목의 변경은 본인의 학습전략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수능에서 학습전략의 변화는 해당 선택과목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선택과목 변경은 신중해야 합니다.

<작성 참고자료>

1.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출제방향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보도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교 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